

수사조작 검찰본부 해체하라! 김석기를 구속하고 이명박은 물러나라!

이명박정권용산살인진압규탄 및 열사추모

# 범국민대회

2월 14일(토) 오후 4시 | 청계광장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 <http://mbout.jinbo.net> | [mbout@jinbo.net](mailto:mbout@jinbo.net) | 전화 02-795-1444 | 후원계좌 067-02-302163 (농협중앙회, 이종회)

# 2월 14일 오후4시 청계광장으로 모읍시다!

## 살인자 무죄, 희생자 유죄-진실 왜곡, 편파수사 검찰본부 해체하라

**첫째, 매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용산철거민 살인진압규탄 촛불추모대회**

**둘째, 분향소 조문에 함께합시다.**

순천향병원 또는 용산 참사현장에서 조문하실 수 있습니다.

mboutjinbo.net 접속하여 인터넷 분향 참여 및 추모 댓글 남깁시다.

**셋째, 청와대 및 경찰청 항의 글 남기기**

살인 만행을 자행한 경찰과 정부에 항의합시다.

**넷째, 추모와 규탄 행동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후원계좌\_ 농협 067-02-302163 (예금주: 이종희)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 세 차례나 연기한 내용은 PD수첩에서 제시한 증거에 마지못해 '뒷북 수사'에, 결국 경찰은 죄가 없다는 '면죄부 주기'와 모든 책임은 철거민들에게 있다는 '책임 떠넘기기' 뿐입니다. 화재원인이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이라며 제시한 증거는 누가 어떤 액체를 뿌리고 있는 지 알 수도 없는 내용의 동영상 뿐입니다.

## 테러범은 철거민이 아니라 경찰입니다

참사 전 날 철거민들이 화염병 투척, 새총발사로 시민 안전을 크게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1천 7백 경찰특공대 투입 근거인 19일의 급박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일 오전 농성자들과 경찰과 용역 사이에 잠깐의 대치상황이 있었지만, 일반시민의 피해가 없었고 오후에는 주변 통행도 자유로울 만큼 평화로웠다는 것을 이미 주변 상가 와 주민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용역강패들의 공격에 대한 방어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인화물질들이 다섯 분이 열사가 죽어 마땅한 원인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 김석기를 구속하고 이명박은 물러나라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듯 진상을 규명할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으면서 라디오 연설에서 "진상규명이 먼저이고 책임규명은 그 다음" 이 원칙이라는 헛소리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석기 청장은 경질뿐 아니라 구속·처벌이 필요하고, 나아가 재벌·부자 들만을 위한 온갖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가 물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있는 사람에게만 좋고, 없는 사람은 죽어야 하는' 나라에서 계속 죽어가야 할 것입니다.

1987년 박종철 열사를 살해하고 한 정권이 끝났습니다. 자랑스러운 민주화 항쟁의 역사가 다시 한 번 쓰여질 때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는 살기 위해서, 용역강패의 폭력을 피해 옥상망루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수천도의 화염에 휩싸여 돌아가셨습니다. 무릎 꿇고 다 으스스한 우리 막내는 목발을 잡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용산 참사 이야기에 "법치주의"를 들먹이며 동문서답을 하시더군요. 말이 좋아 법이지요,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법을 지키라는 말을 하는 겁니까?

30년 동안 장사하던 곳에서 하루 아침에 쫓겨나는 사람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하는 법, 시민들 쫓아내고 비싼 아파트 지어서 수백억, 수천억을 벌어들이는 재벌 기업들을 위한 법, 용역 강패들이 주민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력을 퍼붓고 가게 담벼락에 시뻘건 페인트로 목 매달린 시체를 그려놓아도 내버려 두는 법, 우리 아버지들의 시신을 우리 유가족들이 한 번 보기도 전에 아무런 동의도 없이 부검하고 난도질 하고도 검사가 법대로 한 일이니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법, 국민 다섯 명을 죽이고도 정부에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법, 그런 법도 법이라고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주범들은 가만히 두고 우리 철거민들만 구속시켰습니다. 모든 책임을 돌아가신 분들에게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우리 아버지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故 이상림 열사의 따님 현선씨가 쓴 글 중에서